

전주 유명 콜택시 '한옥콜' 번호 사라지나

KT "대표전화 계약기간 끝났다" 서비스 제공 종료 통보 전주개인택시조합 "유예기간도 없이... 대기업 횡포" 반발

전주의 브랜드 콜택시 '한옥콜'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콜택시 업무제휴를 한 KT가 대표번호(063-221-1111) 제공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4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가까이 사용하던 한옥콜 대표번호를 업무제휴를 맺었던 대기업인 KT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빼앗으려 한다"며 "하루아침에 대표전화 번호를 빼앗는

KT의 행위는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비윤리적 경영이자 대기업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KT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영세사업자의 영업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데도 택시기사들의 '생명줄'인 콜택시 대표번호를 유예기간조차 없이 불과 며칠 남겨두고 KT 전북고객본부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종료를 알린 행태는 전북도민 차원에

서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한옥콜 대표전화번호 명의를 돌려달라"고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으면 KT 불매운동은 물론 콜택시 시스템 선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 요청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했다. 전주 한옥콜 콜택시는 전주시 예산지원을 받아 지난 2011년 5월 KT파워텔과 업무제휴를 통해 탄생했다. 당시 1000여대로 시작한 한옥콜 콜택시는 기존 디지털 무선방식에서 GPS방식으로 전환, 카드결제 시스템까지 부착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현재 한옥콜에 가입한 개인택시 회원 숫자만 1700여명, 하루 8000콜에 육박하는 지역 대표 콜택시로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KT와 체결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고, 사업제안서까지 제출했던 KT가 선정 당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콜택시 시스템 사업자가 변경된 상황이다. KT는 계열사인 오토피온 장비를 이용하는 파트너사에 한옥콜 대표번호를 넘긴다는 방침이며, 해당 콜택시 대표번호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차원에서 제공해 회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해 식초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이 발효식초전문인을 양성하는 식초문화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고창군 제공>

순창군,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추진

근로자 문화향유 기회 제공 참여 기업 21일까지 모집

순창군은 올해도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배달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근로의욕을 높여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6개 기업에 문화공연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공연장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직장 내에서 원하는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왔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순창군 제공>

올해는 전통국악, 퓨전국악, 대중음악, 재즈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높인 공연으로 문화통신사 협동조합과 순창음악협회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희망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

계로 신청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현재 문화배달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의 애로사

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식초도시 고창 '식초문화아카데미' 연다

17일까지 참가자 모집... 발효식초전문인 양성 교육 등 마련

우리나라 유일 식초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이 식초문화아카데미를 연다. 고창군은 농생명식품수도 선점을 위해 식초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1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식초문화아카데미는 발효식초 전문인 양성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해 식초문화도시에 걸맞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정규 3개 과정 초급, 응용, 상품화로 구분해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고창군민과 식초에 관심이 많은 타 지자체 주민들도 신청가능하다.

고창군은 오는 1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뒤 최종 면접을 통해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한다. 교육 희망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식초산업육성전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만지고 향아리에 담고, 발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슬로푸드에 이로운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행복콜택시' 대폭 확대 운행

요금 1000원... 89개 오지마을 주민 교통 제공

고창군은 오지마을 교통복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행해 온 행복콜택시(사신)를 올해부터 14개 모든 읍·면 89개 마을로 확대 운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콜택시는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택시를 부르면 1000원만 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창군은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0.7km까지 완화해 지난해 48개 마을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1개 마을을 추가해 89개 마을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지난해(1억9000만원) 대비 63.2% 늘린 3억1000만원을 배정한다. 지난해 고창군 행복콜택시 이용자는 3만9219명이었으며, 올해는 6만4000명 가



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교통복지 정책은 군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군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

다"며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콜택시 운영을 점차적으로 확대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올해 '순창장류축제' 10월 16~18일 개최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서 일정 확정

전북 최우수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올해는 10월16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순창군은 장류와 발효 음식의 진수를 맛보는 '제15회 순창장류축제'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잠정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축제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이며,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순창장류축제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축제 일정과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등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황숙주 순창군수가 신규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가 이뤄졌다.

회의는 올해 축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지난해 축제에 문화 관광 유망 축제, 전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기세를 몰아 올해 더욱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 문화, 관광자원, 장류 문화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 순창장류축제 위원장은 "순창군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한다는 자세로 장류축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